

# 退溪의 詩에 대하여\*\*

李 東 歡\*

• 目 次 •

- |                       |          |
|-----------------------|----------|
| I. 退溪의 詩人的 지위         | III. 結 語 |
| II. 退溪詩의 詩的 비전-超越과 和諧 |          |

## I. 退溪의 詩人的 地位

도학의 巨峯으로서의 퇴계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그의 시인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소극적이게 해 왔다. 더구나 도학의 입장이 시와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해해온 것이 這間의 사정이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陶山十二曲》 등 몇 국문작품은 그것이 국문작품임으로 해서 특히 거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의 이천여편의 浩瀚한 漢詩는 그동안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질 못하였다.

퇴계도 도학자 일반이 그러하듯이 시는 末技라 하고<sup>1)</sup>, 문예에 工巧 하려는 것은 儒가 아니라고 했다<sup>2)</sup>. 그러나 이 말만 가지고 퇴계가 시 또는 문학 자체를 부정했다고 생각한다면 속단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시 또는 문학에 대한 도학의 상대적인 우위를 강조한 말일 뿐이다.

\*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19호(1978) 게재논문

1) 「夫詩雖末技，本於性情，有體有格，誠不可易而爲之。」《退溪先生文集》卷35，與鄭子精。

2) 「儒家意味自別。工文藝，非儒也。取科第，非儒也。」《退陶先生言行通錄》卷2。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문화활동 가운데 문학이 어느 경우에도 우위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문학에 관한 도학자들의 발언에 지나치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 도학자가 아닌 杜甫 같은 시인도 『文章一小技，於道未爲尊』이라고 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학자들은 실은 문학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문학의 어떤 경향, 이를테면 「雕蟲篆刻」의 技巧主義나 또는 지나치게 걱정적인 것 따위를 배격했을 뿐이다. 그리고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학적 준거 위에서, 양식상 다분히 폐쇄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이루어 놓았다.

속단의 不許는 퇴계의 다음과 같은 말과 그의 實際詩作生活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즉 그는 『시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 스스로 그릇된다.』<sup>3)</sup>했고, 한 제자[鄭琢]에게 준 편지에서 『시는 (비록 末技이나) 性情에 근본해 있으며 體가 있고 格이 있어 진실로 용이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 그저 입에서 나오는대로 붓이 가는대로 마구 아무렇게나 써서는 비록 一時의 쾌감은 살지 모르나 아마도 萬世에 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4)</sup>고 했다. 詩作態도의 신중성 또는 진지성을 깨우친 말이다. 「萬世」라는 말은 다분히 관용적 과장이기는 하지만 시를 萬世에 전할 만한 무엇으로까지 보고 있었다는 점은 특히 유의할 만하다. 그리고 그 자신 즐겨 시를 짓되 偶吟 一絶이라도 一句一字를 반드시 정밀히 생각하여 完定짓고 가벼이 발표하지 않았다<sup>5)</sup>고 제자들은 기록하고 있다. 양적으로 많은 작품을 지었으면서도 그 詩作 태도가 비상하게 진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 이천여편은 朱子の 천이백여편의 배에 가깝고, 시를 전업으로 한 웬만한 시인에게도 밀리지 않을 양이다. 그러나 이 양적인 浩瀚함과, 그리고 시에 대한 긍정적 발언 및 詩作 태도의 진지함이 바로 그

3) 「詩不誤人人自誤」《退溪先生文集》卷1, 吟詩.

4) 「夫詩雖末技，本於性情，有體有格，誠不可易而爲之。… 而信口信筆，胡亂寫去，雖取快於一時，恐難傳於萬世也。」前揭書 卷35, 與鄭子精.

5) 「先生喜爲詩，平生用功甚多.」, 「雖偶吟一絶，一句一字，必精思更定，不輕示人.」《退陶先生言行通錄》卷5, 類編, 雜記.

대로 그의 시인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의 제자 權應仁의 이른바 「澹薄風月」의 일화<sup>6)</sup>나, 그의 시에 대해 체재상의 결함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는<sup>7)</sup>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시가 과거 문인 일반에게 다분히 소극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일면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시를 보는 눈이 한결같을 수는 없다. 그의 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다른 한 쪽이 있어 왔음도 동시에 상기해야 한다. 그 가운데 權氏의 說을 반박하면서 퇴계의 《贈林錦湖亨秀二律》 등을 들어 그의 시적 역량을 높이 긍정한 李瀾의 논평과<sup>8)</sup>, 그리고 許筠이 그의 《國朝詩刪》에서

『비단 理學만이 아니라 詩에 있어서도 역시 諸公을 壓倒한다.』

고 한 論定은 특히 유의할 만하다. 주지하듯이 許筠은 鑑識眼이 날카롭기로 유명하다. 여기에 퇴계가 자신의 시에 대해 완곡하게 자부를 내보인 다음과 같은 말을 아울러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의 시가 枯淡해서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내가 시에 대해 用力한 바가 자못 깊기 때문에 처음 읽어 보면 비록 冷淡한 것 같지마는 오래 두고 읽어 보면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sup>9)</sup>

- 
- 6) 「權松溪應仁，居星州，退溪先生弟子也。…嘗言于退溪曰：『先生少止澹薄風月·濃墨草書，則先生之道德益高。』風月者，東俗所謂詩也。」李德懋，〈靑莊館全書〉卷68，寒竹堂涉筆上，權松溪。
- 7) 「退溪喜作詩，今見於集中者，人多稱欠體裁。當時權松溪應仁謂：『先生不爲詩若草，差強人意。』殊不知其不爲也，非不能也。…退溪贈林錦湖亨秀二律云。…句句飛動，俊爽可掬，雖華岳峯尖，寒鷗睇野，無以逾此。彼錦湖之平生豪吟，未必逮及也。要是非錦湖，退溪亦終不露圭角，松溪何足知之。」李瀾 〈星湖僊說類選〉卷10下，論文門，退溪詩。
- 8) 同上
- 9) 「吾詩枯淡，人多不喜。然於詩用力頗深，故初看雖似冷淡，久看則不無意味。」〈退陶先生言行通錄〉卷5，類編，雜記。

이상의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보면 국문시가 몇 편에만 의지해온 퇴계의 문학적 측면에 대한 종래의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의 시인적 지위를 정립,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근거와 필요는 확실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그에 대한 탐구영역의 道學一邊으로부터의 擴充을 기도하자는 것이다. 그의 시는 그의 浩瀚한 정신적 용량의 또 다른 일면으로의 대응물인 것이다.

이 짙막한 시도는 위와 같은 견지에서 그의 시세계의 일국면을 탐색해 보려는 것이다.

## II. 退溪詩의 詩的 비전—超越과 和諧

퇴계가 시에서 자아와 세계를 파악하는, 또는 보여주는 視點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접근하여 그것을 「超越」과 「和諧」라는 두 범주로 포착해 보았다.

퇴계의 시의 바닥을 가장 돋보이게 흐르고 있는 시인의식은 <청정한 세계에의 希求>다. 그의 시에 頻繁하게 나타나고 있는 「매화」와 「달」과 「仙」의 이미지는 <청정한 세계>의 표상으로 되어 있다. 특히 매화는 퇴계의 집요한 시적 추구의 대상으로 유명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시를 보자.

藐姑山人臘雪村  
鍊形化作寒梅魂  
風吹雪洗見本眞  
玉色天然超世昏  
高情不入衆芳騷  
千載一笑孤山園  
世人不識嘆類沈  
今我獨得欣逢溫  
神清骨凜物自悟

至道不假餐霞噉  
 昨夜夢見縞衣仙  
 同跨白鳳飛天門  
 蟾宮要授玉杵藥  
 織女前導姮娥言  
 覺來異香滿懷袖  
 月下攀條傾一罇      《湖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二首》<sup>10)</sup>

「藐姑山人」·「臘雪」·「寒梅」·「風吹」·「玉色」·「神清」·「縞衣」·「白鳳」·「蟾宮(달)」·「姮娥」·「月下」와 같은 희고 깨끗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청정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도교 쪽의 仙界說話를 대담하게 도입시킨 것은 흔히 보듯이 仙界 자체에의 夢幻的인 동경에서가 아니라 매화에게서 어떤 구조를 갖춘 청정한 공간의 이미지가 환기되기에 가장 적합한 媒材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至道不假餐霞噉』이라고 仙術을 비판하고 넘어가는 대목에 충분히 示唆되어 있다. 곧 도교적인 仙界 자체와는 별개인, 시인이 想念하고 있는 어떤 청정한 세계에의 覺醒된 의식의 지향인 것이다. 이 점은 달 밤을 읊은 다음의 시와 연결해 보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溪堂月白川堂白  
 今夜風清昨夜清  
 別有一般光霽處  
 吾儕安得驗明誠      《七月既望》<sup>11)</sup>

『別有一般光霽處』라 하고 그것을 「明誠」이라는 윤리적 개념에 연결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光霽處」라는 <청정한 세계>가 시인의 안으로 내재화되고 있다. 이런 내재화는 다음의 시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10) 《退溪先生文集》 卷1, 張20.

11) 前掲書, 卷3, 張55.

明月在天上  
 幽人在窓下  
 金波湛玉淵  
 本來非二者 《八月十五夜西軒對月二首》<sup>12)</sup>

결국 시인이 希求하는 <청정한 세계>는 외적 지향과 내적 지향의 비전으로 나타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청정한 세계>에의 希求는 그것과는 대립되는 세계, 즉 <혼탁한 세계>에 의해 제약된 자리에서 起來된 것임은 이미 예상되어 있는 바다. 외적 지향의 경우는 위의 《湖堂梅花》詩에서 「玉色」에 대한 「世昏」, 「高情」에 대한 「衆芳騷」, 「我」에 대한 「世人」으로 그 대립관계가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적 지향에서의 제약은 시인[퇴계]이 약관 무렵에 지었다는 유명한 다음의 시에 이미 잘 드러나 있다.

露草夭夭繞碧坡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恐時時燕蹴波 《野池》<sup>13)</sup>

「小塘清活」에 대한 「燕蹴波」가 그것이다.

역시 잘 알려진 다음의 시에서는 위의 외적 혼탁과 내적 혼탁이 하나로 겹쳐져 보다 강한 이미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다.

黃濁滔滔便隱形  
 安流帖帖始分明  
 可憐如許奔衝裏  
 千古盤陀不轉傾 《盤陀石》<sup>14)</sup>

12) 前掲書, 卷2, 張14.

13) 《退溪先生文集外集》 卷1, 張5.

14) 《退溪先生文集》 卷3, 張13.

이 시는 시인[퇴계]자신의 立命의 경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奔衝」하는 「滔滔」한 「黃濁」은 시인이 지향하는 <청정의 세계>에 대한 <혼탁의 세계>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경우다.

이와 같이 <혼탁의 세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청정의 세계>에로 넘어가려는 지향을 우리는 「초월의 비전」으로 범주화해도 좋을 것이다. 이 초월의 비전을 가져오게 된 혼탁과 청정의 대립적 세계관은 그의 당시 현실관(외적 대립의 경우)과 理氣論에 근거한 心性觀(내적 대립의 경우)에 대응된다.

이 초월의 비전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범신론적 교감으로도 나타난다.

芸芸庶物從何有  
漠漠源頭不是虛  
欲識前賢興感處  
請看庭草與盆魚      《觀物》<sup>15)</sup>

人正虛襟對窓几  
草含生意滿庭除  
欲知物我元無間  
請看眞精妙合初      《次韻金惇叙》<sup>16)</sup>

생명을 가진 「庭草」와 「盆魚」같은 미물과의 교감으로 「漠漠源頭」와 「眞精妙合初」라는 본체세계로 통하려는 자리에는 초월적 외재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가적 입장에서의 영원한 불변자에로의 歸依의 염원이 스며 있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초월인 것이다. 이런 발상은 물론 周敦頤의 《太極圖說》에서 온 것이지만 그의 시에서의 <자연의 의미>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건이기도 한 것이다. 즉 철학적 사유에 의한 자연과의 합일을 「興感」이라는 정서적 고양 쪽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원자와의

15) 前掲書, 卷3, 張4.

16) 《退溪先生文集外集》 卷1.

어떤 신앙적 결합의 氣味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경우다. 다음의 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결합에서 올 수 있는 喜悅의 극적 고양의 한 순간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天末歸雲千萬峯  
 碧波青嶂夕陽紅  
 攜筇急向高臺上  
 一笑開襟萬里風      《夕霽登臺》<sup>17)</sup>

그러나 언제나 자연과의 합일로 희열만 있는 것은 아니다.

栽花病客十年回  
 樹老迎人盡意開  
 我欲問花花不語  
 悲歡萬事付春杯

晚雨廉纖鳥韻悲  
 千花無語浪辭枝  
 何人一笛吹春怨  
 芳草天涯無限思      《紅桃花下寄金季珍二首》<sup>18)</sup>

생멸이라는 자연의 커다란 질서 속에 흡수되어 가는 유한한 한 현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세속적인 자아의 자리에서 바라 볼 때에는 위와 같은 비애를 회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세속적인 자아의 자리에서의 비애의 초극을 위해서는 외재적인 절대자의 매개없이 세계와 직접 대면하는 유가의 입장에서는 보다 覺醒된 의식이 늘 요구되었고, 이것이 내적 초월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음, 「和譜」의 비전은 그의 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17) 《退溪先生文集》 卷3, 張33.

18) 前掲書, 卷2, 張20.

것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그의 세계관에서 빚어져 나온 것이다. 주자학의 세계관이 근원적으로 낙관적임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위에서 <청정한 세계>와 <혼탁한 세계>와의 대립적 세계관을 지적했지만, 그러나 이 대립은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것은 아니다. <청정의 세계>가 <혼탁의 세계>앞에 결정적으로 부서져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主理」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花發巖崖春寂寂  
鳥鳴澗樹水潺潺  
偶從山後攜童冠  
閒到山前問考槃      《步自溪上踰山至書堂》<sup>19)</sup>

꽃의 피어남, 봄기운의 고요함, 새의 지저귀, 물소리의 잔잔함, 그리고 이 사이를 童冠을 거느리고 優閑하게 걸어와 隱棲處로 이른 작중 주인공 및 그 動作, 이런 자연과 인간의 事象들이 거의 完美하게 어울린, 화해의 한 극치경을 포착하고 있다. 퇴계의 육십일세 때 도산서당에서의 作이다. 이 시의 작중 주인공인 퇴계를 이 때 수행했던 제자 李德弘이 이 시에 <上下同流해서 各得其所함을 즐기는 妙>가 있다고 하자 퇴계는 이를 시인했다.<sup>20)</sup> 「上下同流, 各得其所」는 주지하듯이 자연과 인간이 融一하게 어울린, 바로 화해의 세계상을 가리킨다. 《山居四時》를 위시한 그의 많은 田園詩篇들은 대체로 이 화해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합일의 의미도 아울러 가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들 작품의 意境이 결코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대동소이라 하더라도 그 「小異」에 놓여 있는 작품 개성의 정치한 파악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 前掲書, 卷3, 張29.

20) 《退陶先生言行通錄》 卷3, 張6, 類編, 樂山水.

### Ⅲ. 結 語

위에서 粗略하게 試論한 「초월」과 「화해」의 비전만으로 퇴계의 시가 다 설명되리라고는 물론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퇴계의 시세계의 주요한 국면, 거의 本領的인 것임은 확실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퇴계의 많은 서정시·전원시가 단순한 서정·전원시가 아니라 그의 철학적, 도학적 사유를 그 깊이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위의 試論으로 드러났다면 퇴계의 시는 주로 이런 각도, 즉 韓國漢文學史上에 철학적, 또는 도학적 서정시의 넓은 한 경지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접근은 퇴계의 道學研究에도 일정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